

해남군, 솔라시도에 10만 자족형 미래 신도시 구축 '착착'

산이면 일원 첫 마을 주택 내년 6월 착공·분양...600세대 공급

400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2000세대 레저형 주거단지 조성도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추진하는 정주인구 10만명이 거주하는 '자족형 미래 신도시'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첫마을 주택 단지'를 내년 6월 착공·분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첫마을'은 기업도시 내 첨단산업 종사자와 해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솔라시도 내 최초의 공동주택 단지이다.

기업도시 내 계획형으로 조성되는 만큼 주거와

업무, 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주 모델을 지향한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 총 600가구 규모 조성되며, 지하 1층부터 최고 29층까지 공동주택으로 계획돼 있다.

첫마을에 이어 솔라시도 내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지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4000여 가구 규모로 국가AI컴퓨팅센터와 RE100국가산단, 국제학교 준공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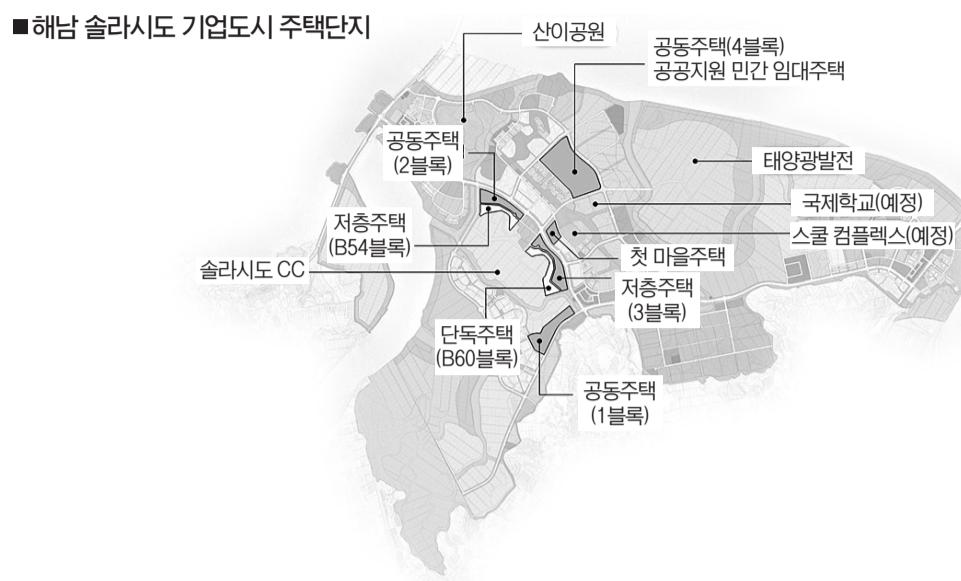
또 솔라시도CC 인근에 2000여 가구 규모의 레

저형 주거단지, 스마트그린빌리지(SGV) 주택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오는 2028년 운영을 시작하는 국가AI 컴퓨팅센터를 비롯해 대규모 AI데이터센터, RE 100국가산단 지정,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 까지 접속되면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10만의 신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해남의 미래 구조를 재편하는 프로젝트"라며 "첨단산업 유치 단계부터 주거 인프라를 동시에 설계해 일하고, 살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이 해남 안에서 완결되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 안마도 앞바다에 전복 종자 4만 마리 방류

먹이생물 미역·다시마 등 풍부
생장률 향상·수산자원 회복 기대

영광군이 연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최근 낙월면 안마도 해역에 전복 종자 4만 마리를 방류했다.

전복은 방류 해역 주변에 서식해 재포획률이 높은 정착성 품종이다. 안마도 연안은 전복 먹이생물인 미역과 다시마가 풍부하고 전복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암반 지형으로 이루어져 방류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 방류한 전복은 크기가 5cm 내외로, 2~3년 후 상품성이 있는 10cm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올해 칠산해역에 감성돔 10만 마리, 대하 1300만 마리, 보리새우 300만 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앞으로도 해양 생태계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산 종자를 지속해서 방류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온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해



영광군 관계자들이 낙월면 안마도 해역에 전복 종자를 방류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예전보다 전복 포획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면서 "전복과 해삼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

산 종자를 지속해서 방류해 달라"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4000만 송이 애기동백꽃길로 초대합니다

신안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
내일부터 한달간 겨울꽃 축제

신안 '섬 겨울꽃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린다.

분재정원 3km 애기동백 숲길에는 2만 그루의 꽃이 피어 정원을붉게 물들이고 있으며, 축제 기간에는 약 4000만 송이의 애기동백꽃이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관람객들은 한겨울에도 화사한 꽃길을 거닐며 특별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번 축제에는 전망대 포토존과 천사날개 포토존 등 다양한 촬영 명소가 마련돼 있다. '소원지 쓰기', 내년 해당화꽃이 필 무렵 발송되는 '나만의 애기동백 엽서 쓰기' 등의 참여형 체험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분재정원 내 저녁노을미술관에서는 전문 작가들의 동백 작품 전시가 진행되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백 그림 그리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아름다운 다도해 바다 정원을 조망할 수 있는 분



1004섬 분재정원 애기동백 숲길.

제정원은 미술관, 박물관, 분재원, 수목원, 산림욕장 등을 갖추고 있고, 특히 20억원을 투자하는 명품분재가 전시돼 있어 연간 20만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고 붉게 피어나는 4000만 송이 애기동백꽃의 향연을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여성 평화 네트워크 발전 방향 모색

IWPG 목포지부, 정기모임...김선아 지부장, 국회의원·목포시장 표창

(사)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목포지부(지부장 김선아)는 최근 목포과학대학교 연구관 대강당에서 '2025 세계여성평화 네트워크 정기모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요 인사와 IWPG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평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여성 평화 네트워크의 확장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정기모임은 김원이 국회의원의 축전으로 문을 열었으며, 이어 IWPG의 2025년 연간 활동 보고가 진행됐다.

보고에서는 여성평화교육과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환경정화 활동, 지역사회 기부

및 봉사, 글로벌 연대사업 등 다양한 평화 실천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이날 김선아 목포지부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평화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원 표창과 목포시장 표장을 동시에 받는 영예를 안았다.

김 지부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표장은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목포지부 모든 회원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인 평화를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목포지부가 지역과 세계를 잇는 평화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축하 공연으로는 색소폰 듀오의 연주가 펼쳐졌으며, 참석자 전원이 핑크색 나비 피켓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물결처럼 흔들린 핑크빛 나비는 여성 연대를 통해 확산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상징하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정기모임은 유디치과, 서광디자인, 온누리 기획, 금강공업사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한편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유엔 글로벌소통국(DGC)에 등록된 세계적인 여성 NGO로, 현재 전 세계 122개국에 115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68개국 808개 협력단체와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 평화 실현'을 비전으로 평화문화 확산, 여성평화교육,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법제화 지지 활동 등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재생에너지 반도체 팝 유치 추진

대규모 전력·안정적 용수 공급 최적...K-반도체 산업 새 축 기대

해남군이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팝(FAB) 유치에 나섰다.

반도체 팝(Fabrication)은 반도체 웨이퍼 생산

이 이뤄지는 클린룸과 가스·화학물질·전력 공급 부대설비로 구성된 공장으로 여러 개의 팝과 관련 기업이 접속될 경우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장된다. 대규모 전력과 안정적 용수 공급이 필수적이다.

해남은 태양광·풍력 중심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확장이 가능한 대규모 산업부지, 영암호·금호호를 통한 대규모 용수, 환경·입지 규제 부담이 적

은 여건을 고루 갖춘 지역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와 대규모 AI데이터센터의 입지가 확정될 정도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 26만평이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 데 이어 올 연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RE100국가산단 1호 시범지구 선정이 유력해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정부의 전략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해남은 K-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기운찬 천하장어' 브랜드 등록

고창군 이어 전국 두 번째...9개 품목 상표권 확보

"영암 민물장어 '기운찬 천하장어'로 불러 주세요."

영암군이 고창군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장어 브랜드를 개발해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기운찬 천하장어에는 기(氣)의 고장 영암, 힘의 상징 장어, 천하장사의 산실 영암군 민속씨름단 등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영암군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 '영암 장어 브랜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브랜드 기관 천하장어 상표를 특허청에 최종 등록했다.

상표권자는 영암군 이름으로 장어구이 등 9개 품목의 상표권을 확보하고 영암 장어 양식업체 누구나 '기운찬 천하장어' 상표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민물장어 전국 주요 생산지인 영암군 양식업 규모는 허가 33개소, 면적 15만 702㎡로 전남 2위 수준이다.

월출산국립공원 주변의 청정환경에서 국내산 자포나기 종만 생산·출하해 두터운 육질, 쫄깃한 식감 등 높은 상품성으로 전국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군은 기운찬 천하장어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 대



영암군 기운찬 천하장어 상품.

포 축제 홍보 부스 운영,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시식회·직거래 할인판매 등 소비자 체험 마케팅을 확대하고, 민물장어 양식수협·영암군장어 생산자협회와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AI 수산양식 플랫폼' 과기부 장관상

수온 등 양식 환경 데이터 실시간 수집...최적 양식 환경 예측·관리

완도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한 '제3회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치우 바다 인공지능(AI) 수산양식 플랫폼'으로 최고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사회 디지털 전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치우 바다 인공지능 수산양식 플랫폼'은 수온, 용존산소 등 양식 환경 데이터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 실시간 수집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최적의 양식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군은 이 기술을 통해 이상 수온과 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 피해를 줄이고 양식어가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수산 양식업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인공지능 수산양식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해 지속 가능한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kwangju.co.kr

신안군, 도서지역 노동착취 예방안 논의

신안군이 도서지역에서 다시 불거진 노동력 착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제2차 신안군인 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 행정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촉직·당연직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군은 올해 인권 행정 강화 성과로 제도 개선 정비, 취약계층 접근 강화, 인권교육 및 캠페인 확대 등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염전 근로자 노동착취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현장 대응 체계의 보완을 강조했다.

위원회들은 협동 대응체계 보완, 고위험군 관리 강화, 신고와 감시망 확충에 의견을 모았다.

신안군은 내년에는 인권지킴이단 및 상담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이주노동자·취약계층 상시 관리, 공무원과 고용주 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고도화를 추진하여 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